

항몽유적에서 보내는 7월의 편지

어느 시인의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고, 항몽유적의 7월은 꽃 · 풀내음이 익어갑니다.

7월은 딱히 어떤 달이라고 명시된 것이 없어서 제 나름대로 『시작의 달』 이라 이름 붙여봤습니다.

하반기의 시작, 여름의 시작, 무더위의 시작, 방학 · 휴가의 시작 등등……

올 상반기는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는 광고처럼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때, 가까운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으로 놀러 오세요, 항몽유적 진입로 입구 수국이 활짝 피어 반갑게 맞아 주고, 태극기 바람개비가 바람에 펄럭이며, 토성가는 길에 위치한 운치있는 정자는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기에 더할 나위 없습니다.

7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희망이라는 청포도가 주저리 주저리 열렸으면 합니다.

